



タイトル Title	比較植民地論から見た日本支配 [本文:韓国語]
著者 Author(s)	Kimura, Kan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歴史教育交流事業・専門会見交換会;
刊行日 Issue date	2007-02-28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 会議発表論文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C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90000401

비교식민지론으로 본 일본지배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기무라 칸

첫머리에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지배. 그 지배가 끝난지 이미 60년 이상 지난 오늘날,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배를 두고 세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열악한 지배라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 식민지 지배를 두고 세계에서 예를 볼 수 없는 선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입장인 양자의 논쟁에는 실은 하나의 공통적인 전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자가 모두 논의의 대상인 한반도에 있어 일본 식민지 지배가 뭔가 특수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는 어느 정도 특수한 것이었을까. 본 글은 그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 1 장 경제상태

첫째로, 일본 통치기의 한반도의 경제적 상황부터 살펴보자.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확실한 것은 이 시기의 한반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확대기조로 그 확대 속도는 일본 본토와 거의 같거나 그 보다 약간 빠른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1930년대에 있어서는 한반도와 이웃한 중국 대륙의 전시 수요가 확대된 결과, 조선 경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속도는 본토를 크게 웃돌게 된다.

이 시기의 한반도 경제의 또 한가지 특색은 본토로의 쌀의 반출이 급증한 결과 한반도의 식량사정이 꺾박해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식민지화의 결과로, 조선의 쌀시장이 본토와 일체화 된 결과로 구매력이 강한 본토로 쌀이 반출된 것에 있었다. 사실 식민지기에 있어 한반도의 쌀가격은 본토의 가격과 연동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한반도의 쌀은 국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농산물 급등의 결과로 부가 한반도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 때문에 쌀가격 급등에 의해 본토에서 조선으로 가치의 유입은 쌀 반출량과 균형이 맞는 식량 이입을 가져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반도 내에서의 식량 수급을 꺾박하게 하였다.

제 2 장 중앙 정부와 식민지 정부

일본 통치기의 한반도에 있어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 정부와 식민지 정부, 즉 본토의 정부와 조선 총독부와의 관계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것이 본토 정부와 조선 총독부와의 사이에, 전자로부터 후자에 대한 재정 이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약 10년 더 빨리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대만 총독부와 비교해 봐도, 조선 총독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이전에 대한 의존도는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중앙 정부와 식민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본관계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제국 정부를 대표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정부로서의 조선 총독부의 양면성은 식민지 지배가 장기화 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식민지 지배 개시 당시의 조선 총독부는 본국에서 배치 전환된 일본인 관료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총독부보다도 본토 관청에 더 강한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같은 시기 조선 총독부에 고용된 조선인 관료의 많은 수는 대한 제국시대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들이었으므로 당초 조선 총독부 관료들의 귀속의식은 크게 둘로 나뉘어 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후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관료, 조선인 관료 모두에게 있어서 조선 총독부가 직접 채용하거나, 혹은 아주 오랜 기간 조선 총독부에 근무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그 결과 조선 총독부는, 적어도 총독부 관료들의 주관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국 정부에 대한 조선 대표자”적 성격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말기 조선 총독부 관료의 회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제 3 장 19 세기 후반 이후의 개발주의와 식민지 지배

그렇다면 이러한 한반도 지배 상황은 어느 정도 특수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한반도 통치를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 세기 후반 이후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7 세기나 18 세기의 식민지 개발은 광물자원의 채굴이나 이민, 혹은 노예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의 이민 노동력이나 현지 노동력을 사용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거기에서는 식민지 국가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발의 주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회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 세기에 들어서며 일변한다. 중요한 것은 두가지의 요소였다. 하나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본국에서 보다 많은 식민지로 민간투자가 행해지게 된 것, 또 하나는 민주화의 진행에 의해 사람들이 각국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된 점이다. 그 결과 식민지에 대해 다대한 투자를 하게 된 사람들은, 취득한 참정권을 활용하여 스스로 경제적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서양 각국 정부는 식민지에 대한 적극적 재정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 세기 후반 이후, 서양 열강의 식민지 정부의 재정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또 그 관료기구도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식민지 정부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세, 보다 견고한 재정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본국 재정으로부터의 이전에 의지하게 된다. 같은 시기의 모로코 사건이나 파쇼다 사건으로 대표되듯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 분할의 종료는 서양 열강 식민지간의 완충지대를 없애, 각국은 식민지 방위를 위해서도 부득이하게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관료기구의 확대는 관료들의 출세길을 식민지에 한정시킴에 따라 식민지 관료는 본국보다도 오히려 식민지에 대해 귀속의식을 갖게 된다. 본국에서의 투자와 식민지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재정책은 식민지 경제를 부상시키게 되며, 이 시기 많은 식민지가 경제 성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이 19 세기 후반 이후 서양 열강에 의한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에 완벽하게 일치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1919년 삼일운동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그 하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제 4 장 총동원 체제와 동화정책

이러한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와의 유사성은 식민지 지배 말기, 즉 총력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것은 제 1 차 세계대전의 도래와 함께 서양 열강이 채용한 “총력전”이라고 하는 전쟁 형태가 바로 그 식민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확실히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 대전에서 영국은 인도에서, 프랑스는 제국 전체에서 8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병사로 동원하는 한편 수십만에 이르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었다. 제 1 차 세계대전 보다도 더욱 큰 지역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보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제 2 차 세계대전에서도 같은 일이 전보다 대규모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영국의 인도에서의 동원은 250 만명이라는 다수에 이르고, 아프리카에서도 40 만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반도의 인적 동원도 역시 이러한 총력전기에 있어서 전시동원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병사동원 규모는 반드시 다른 식민지에 비해 돌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인적동원에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통상 주목받는 한반도 밖으로의 인적동원 이상으로 한반도 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총력전”을 위해 동원되었다는 점일 지도 모른다. 배경이 된 것은 조선이나 대만의 본국과의 특수한 관계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과 대만은 본토에 대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들이 본토로의 식량 공급이나, 전쟁을 위한 공업생산 등, 보다 본토의 총력전 체제로 이어지는 최종적인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본국이나 중앙 정부로부터의 자원에 의존하면서 “개발”된 식민지이면서도 조선이나 대만의 경제나 사회는 서양 열강의 식민지와 비교하여 훨씬 많이 본국 경제와 연관되거나 의존성을 갖는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개발” 후의 조선의 모습은, “총력전” 안에 있어서의 인적동원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조선과 대만은 본토의 방위에 있어서도 각자 북방과 남방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보다 강한 “총력전” 으로 연결되었다는 점도 중요할 지 모른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반도가 다른 서양 열강의 식민지와는 다른 형태로 “총력전” 체제에 가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력전”기에 있어서 일본이 조선이나 대만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화한 것은 필시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총력전”에 입하여 조선은 본토나 전장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일차 자원의 공급지”인 동시에 최종적인 생산에 종사하는 “최종 생산물 생산지”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으며, 후자의 목적은 본국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 5 장 탈식민지화 상태의 특수성

지금까지 서술해 온 것을 정리해 보자. 첫째로 확실한 것은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행한 것의 대부분은 19 세기 후반 이후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의 “개발” 중시 경향과 합치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당시의 국제사회의 경향을 더욱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한반도의 경제나 사회는 서양 열강의 식민지와

비교해 더욱더 본국과의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본통치 후기의 한반도는 식민지이면서 동시에 본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총력전” 체제에 관여하는 방법에 있어 조선은 본토나 전장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부에 있어서도 강력한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수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당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향에 따른 식민지 지배가 어찌면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다른 결과로 귀착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보다 현저한 특수성은 아마 식민지 지배 그 자체보다도 그 “종료 방법”에 있었다. 즉 많은 식민지 지배가 그 형식은 제각각이라 해도 현지 세력이 종주국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최종 단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식민지 지배의 “종료 방법”과 미래 관계를 의논하는 것으로 “독립투쟁”은 비로소 끝을 맞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까지의 식민지가 독립을 맞은 단계에서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청산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존재하며 새로운 독립국은 당초부터 이제까지의 종주국과 국교를 맺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데뷔한다.

그렇지만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전혀 다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방책은 카이로 선언 이후 연합국의 요구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 일본이 받아들인 직접적 결과로, 그 과정에 있어 한반도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과 일본과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는 일 없이 끝을 맞게 된다. 문제가 뒤로 미뤄진 결과, 언제부턴가 문제는 구체성을 잃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그 해결은 한층 곤란하게 되어 졌다.

글을 맺으며

이상 비교 식민지론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일본지배에 대해 서술하였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 통치의 많은 부분은 당시의 국제사회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일반적 경향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열강을 모델로 자신 개발에 노력해 온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도 서양 열강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일본 통치기의 한반도를 둘러싼 논쟁은 쓸데없이 “특수성”을 논의할 뿐, 이러한 상황을 거의 무시해 왔다. 특수성도 또한 일반성을 같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뚜렷이 밝힐 수 없다. 우리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